8년 만에 '역대급 엔저'…일본 여행 관심 증가

100엔당 903원까지 떨어져 지역민 엔화상품 거래도 늘어

광주은행 1~15일 엔화 환전 7천만원…전월비 1.66배 증가

다음달 일본 도쿄행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직장인 이모(여·28)씨는 엔화가 908원을 기록한 지난 15일 한화 20만원을 환전했다.

이씨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올 여름 휴가를 일본으로 선택했다"며 "국내 물가가 높아, 구매 목록에 올려놨던 물품을 일본에서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908원에 환전한 게 아쉬울 정도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800원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일본 여행을 앞두고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엔화 가치가 연일 급락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서 일본여행과 엔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 여행객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은 100엔당 900원 수준으로 8년 만에 가장 낮은 '역대급 엔저 현상'을 보이면서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원·엔 재정환율은 한때 100엔당 903.8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26일(905.40원)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는 원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달러와 유로 등 대부분의 국제 통화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를 구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환차익'을 기대하는 이들은 물론, 엔화가 저렴할 때 일본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서다.

이날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건수는 이달 1일부터 15일 사이 6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 380건에 비해 1.66배(252건)가 늘어난 것이다.

JPY(일본엔화) 구매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15일 광주은행을 통해 고객이 엔화를 구매한 액수(매도액)는 총 6978만원이었다. 지난달 같은 기간 3736만원에 견줘 무려 86%(3242만원)나 급증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5월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약 2732억원)으로 4월(228억3900만엔)보다 73억2800만엔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62억8500만엔)과 비교해도 4.8배 많은 수준이다.

이밖에 5월 엔화 환전액이 가장 많은 한 시중은행의 환전 건수(14만1743건)는 4월(7만8643건)의 거의 두 배일뿐만 아니라 작년 5월(1만841건)과 비교하면 약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6월 엔화 가치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매도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지난 6월 2일부터 930원선까지 내려앉아 하락을 이어간 끝에 900원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행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국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에서 일본으로 향한 여행객은 75만453명으로, 설 연휴가 들었던 지난 1월(68만3038명)보다 많았다. 이달에는 1일부터 10일까지 8만9847명이 국내 항공사의 인천~나리타(도쿄) 노선을 이용했는데 이는 지난 1월(6만6741명) 보다 34.6% 많은 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엔저 현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엔화를 매도하는 건수와 그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감사자문위원 위촉

23일까지 추가 공모

한국전력은 사장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무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3명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사업성과 평가, 리스크관리 평가, 안전관리, 국민 옴부즈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 다양한 감사사안에 대한 자문과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영상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은 "현재 회사의 위기는 변화와 혁신 노력을 통해 발전과 도약을 이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감사활동을 통해 경제성 중심의 정책·사업평가, 안전과 생명 최우선 원칙을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가감 없는 제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번 위촉과 별도로 한전과 전력산업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각 분야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자문위원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공모분야 및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 홈페이지(www.kepco.c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 전 영업점 '무더위쉼터' 운영

8월 31일까지 생수·부채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등 132개 모든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동안 운영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영업점 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2018년 은행권 최초로 무더위 쉼터를 시행, 매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역시 노년층 및 폭염취약계층 등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은행 거래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개방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가 지역민과 고객님께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겨울에는 한겨울쉼터를 운영하고 휴대용 핫팩과 마스크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 경쟁률 1.12대 1

한국은행은 지난 13일까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 구매 예약을 접수한 결과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정된 발행량은 1만4000장으로, 구매 예약 접수 결과 접수량은 총 1만5653장이었다.

판매 형태별로 2종 세트는 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은과 한국조폐공사는 오는 20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품의 경우 예약신청량이 은화 1은 0.91대 1, 은화 2는 0.96대 1로 발행량보다 적어 별도의 추첨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기념주화 교부는 오는 7월 26일부터이며, 단품 미달물량은 한국조폐공사가 8월 중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청년SW아카데미 누적 취업 4천명…취업률 84%

'실전형 인재' 인정 수료자 우대

싱가포르 등 국내외 997곳 취업

삼성청년SW아카데미에서 열린 8기 수료식을 앞두고 'SSAFY 광주 캠퍼스' 8기 교육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은 지난 16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 캠퍼스에서 'SSAFY' 8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 현장에는 8기 수료생 대표 100명과 수료생 가족 10명이 참석했으며 광주를 비롯해 전국 5개 캠퍼스에서 수료생 73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CSR 프로그램이다.

2018년 12월 교육을 시작한 이래 7기까지 누적 취업자는 3979명으로, 취업률은 약 84%다. 8기 수료생 중 조기 취업이 결정된 인원을 더하면 누적 취업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수료생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현대모비스, SK C&C, LG전자, KT, 신세계 I&C, 컬리 등 다양한 기업에 SW 개발자로 취업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 있는 해외 기업에 채용된 사례를 포함하면 SSAFY 수료생이 취업한 업체는 총 997개다.

'실전형 인재'로 인정받으며 현재는 150개가 넘는 업체에서 SSAFY 수료자에 대해 서류심사 면제 또는 가점, 코딩 테스트 면제 등의 우대 사항을 두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최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면서 SW 개발자 수요가 급증, 다수의 SSAFY 수료생이 은행에서 SW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현재 SSAFY에는 약 70명의 삼성 임직원이 온라인 상시 멘토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SSAFY 수료생이 삼성의 사외 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육성된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1~7기 수료생 중 41명이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17곳에 취업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센터에 거주하는 청년이 SSAFY에 입과한 사례도 있다.

SSAFY는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교육생 수는 2300명이다. 교육 과정은 무상이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영·섬유역본부 재난사고 대비 모의훈련 실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유역본부는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을 통해 K-water에서 관리 중인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상황을 가정해 구성원별 임무, 대응절차, 복구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으로 기관별 임무와 절차를 상호 공유해 재난상황 시 유기적 공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백인노 영·섬유역본부 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상황별 대응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국민의 안정적인 물복지 실현을 위해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원하는 일자리 없다" 20대 구직활동 '쉬었음' 증가

지난달 35만7000명으로 전년비 3만6천명 늘어…인구·취업자는 감소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20대 청년 인구와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근로조건의 일자리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29세) 인구는 615만5000명이었다.

635만1000명이었던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9만6000명 감소했다.

20대 인구는 2021년 7월 8000명 증가를 마지막으로 감소세로 전환, 22개월째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실업자 수 역시 인구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3000명 줄어 383만3000명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다.

실업자 역시 작년보다 6만7000명 줄어든 24만1000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 취업자도 실업자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인구 감소 흐름에도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쉰 청년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제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는 작년보다 3만6000명 증가한 35만7000명이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인구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가 포함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별다른 사정 없이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쉬었음'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

지난달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상태 분류 가운데 '쉬었음'은 정규교육 기관 통학(99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취업 준비(33만1000명)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11만3000명)보다도 그냥 쉰 청년의 수가 더 많았다.

지난달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7만3000명)였다.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16만9000명),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0만5000명) 등의 답변도 많이 나왔다.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2만3000명), '근 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만명) 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7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6	18	20	23	32	43	2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75,006,375	12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6,774,331	93
3	5개 숫자일치	1,514,629	2,872
4	4개 숫자일치	50,000	145,504
5	3개 숫자일치	5,000	2,400,605